

# 구례읍사무소 청사·부지, 군민 품으로 돌아온다

### 기재부, 국유재산 무상양여 확정 김 군수, 자료 확보·당위성 설명

60여년간 국유재산이었던 구례읍사무소 부지가 구례군민 품으로 돌아온다.

6일 구례군에 따르면 김순호 구례군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인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의 무상양여를 확정받았다.

협의회는 7개 광역 부단체장, 4개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유류·저활용 상태의 국유재산 매각 및 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전체 건의 100건 중 91건이 수용됐다.

김 군수는 구례읍사무소로 활용 중인 국유재산(경철정)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례읍사무소 건물은 구례군 소유로

되어 있으나 부지는 국유재산으로 남아 있었다. 구례군은 읍사무소 부지에 대한 군 소유 등기이전이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구례군은 2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요청했으나 양여 당시의 부지 번지와 현재 번지가 달라 양여가 보류된 바 있다.

구례읍사무소 현재 부지는 구례읍 봉동리 295-1번지이지만 1964년 양여 당시에는 2필지(300-8-295-1번지) 중 대표 번지가 300-8번지로 돼 있었다. 이후 토지의 분할, 합병이 여러 차례 이뤄져 부지 사용 관계의 명확한 입증이 어려웠다.

김 군수는 청사 부지의 연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보해 무상양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구례읍사무소 부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양여 요건을 갖췄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양여 결정을 끌어냈다.

이로써 구례군은 공시지가 기준 20억



60년간 국유재산이었던 구례읍사무소 부지가 구례군민 품으로 돌아온다. 구례군 제공

원 상당의 국유재산 부지를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례군은 2004년 12월 등록문화재 제120호 지정받은 구례읍사무소 건물의 보존 가치를 유지하고 청사를 공공용으로 계속해 활용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60여 년의 군민 숙원사업이 이뤄져 감격스럽다"며 "협의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 터미널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구례군, 오염물질 상황 제공

구례군은 미세먼지 및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상황을 신속하게 제공해 야외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대기질 정보 알림 전달매체)을 구례공영터미널 입구에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환경부와 기상청의 데이터를 환경정보 관리 서버로 전송받아 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단 전광판에 캐릭터와 수치로 표시된다.

미세먼지 농도 4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캐릭터를 색상별, 표정별로 연출(좋음-파랑·보통-초록·나쁨-노랑·매우 나쁨-빨강)해 대기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공영터미널 입구에 설치된 대기질 정보 알림 전달매체로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정보뿐 아니라 온도, 습도 등 기상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구례=김상현 기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접수 영광군, 월 최대 20만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오는 8월21일까지 신청받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만 19세~34세(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하며 본인 재산 가액이 1억7000만원 이하인 청년의 본인 소득이 2023년 기준 월 124만6735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자격은 사전에 마이홈 포털,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은 임대차계약을 완료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의 경우 대한민국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광=김도윤 기자

### 국내박물관 소장 한복 책자 발간 나주천연염색재단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운영 기관인(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 국내 박물관에서 소장중인 한복류 분석과 박물관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재단에 따르면 국립대구박물관과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이 공동연구사업 성과물로 총 252페이지 분량의 '박물관에서 만나는 천연염색 한복'이라는 도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전통 복식에 사용된 한복염색'에 대한 공동 연구 결과물을 집대성했으며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소속 김대국, 김윤희, 허복구 학예사와 서지혜 연구원이 저술했다.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에 등록된 조선시대한복류,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 소장된 한복류 총 1845점에 대해 종류·재질·색깔을 분석했으며 박물관 55곳에서 소장 중인 한복 이미지를 개별 소개한다.

나주=박승엽 기자



### 금성당 명선대중사 영결·다비식

6일 구례 화엄사에서 조계종 원로회장 대원스님, 부의장 일연스님, 문금주 전남행정부지사, 김희재 국회의원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로회회장(葬)으로 엄수됐다.

호남불교 중흥에 앞장선 금성당(金城堂) 명선대중사(明顯大宗師) 영결식 및 다비식이 6일 구례 화엄사에서 조계종 원로회장 대원스님, 부의장 일연스님, 문금주 전남행정부지사, 김희재 국회의원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로회회장(葬)으로 엄수됐다.

전남도 제공

## 곡성군, 행복지표 개발 용역·청년지원정책 발굴

곡성군이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곡성군은 민선8기 군정 역점시책 성공 추진을 위한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주요 현안업무를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민선8기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개발지표를 기반으로 곡성지역만의 행복정책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청년들이 곡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유토피아 시범마을 구축사업' '리스팅 타운 고도화사업' '체류형거점공간 곡성

스테이션1928 조성사업'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청년월세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곡성형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지원,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커뮤니티 지원, 곡성 출신 청년 정착금 지원(은어의 귀환 프로젝트), 기업 면접비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문화관광분야는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기차마을 철도공원 조성사업, 섬진강동화정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대항강생태레저 기반구축사업, 가정역권 야간관광지 조성사업, 정차역별 특화개발사업, 죽곡 인성원 주변 체험관광자원 조성사업, 보성강변 경관자원화사업 등을 통해 체류형 생태힐링 관광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농업분야는 고부가가치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조성,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가루살 생산단지 조성사업, 곡성도란도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복지 강화를 위해 고독사 예방통합센터 운영과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소득 노인 무류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도어락 안심장비 지원, 치매진단 원격서비스 등을 시행한다.

출산장려금도 첫째아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둘째아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에 1조4000억 투입

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에 전년보다 3% 증가한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의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 확대를 지속 가능한 농정 가치를 실현해 나

가겠다고 6일 밝혔다.

농지은행사업은 1990년 농지규모화 사업을 시작으로 은퇴농, 자경 곤란자, 이농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수탁 받아 농지 이용을 필요로 하는 창업농과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

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중(8577억원)을 차지하는 부분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이다.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영농 규모를 확대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총 7821억원을 지원했다.

혁신도시=김용의 기자

### 신학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화순군, 이달 말까지 결과 수합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신학기 맞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나 기관에 안전점검 계획을 전달하고 이달 말까지 사업체와 기관 자체 점검 결과를 수합할 계획이다.

관리 미흡으로 판단되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도시공원(9개소), 어린이집(12개소), 주상복합(4개소), 주택단지(39개소)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71개소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 보완 또는 일정 기한을 두고 개선이나 안전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는 등 행정지도를 통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화순=김선종 기자

### 보급종 콩·팥 종자 105톤 공급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흥재)은 올해 재배할 콩 4품종과 팥 1품종 등 보급종 105여 톤을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공급될 콩 보급종은 농가 선호도가 높은 태광콩 35.7톤, 선풍콩 31.3톤, 대원콩 19.6톤, 풍산나물콩 12.6톤 등 4개 품종 99톤이다.

팥 보급종은 아라리팥 1개 품종 5.9톤이며 오는 3월 17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농협을 통해 공급된다. 포장 5kg 단위로 공급되며 10a(1000㎡)당 종자 소요량은 6kg(풍산나물콩은 5kg) 기준으로 농가에서 소요량을 판단해 신청하면 되고, 공급가격은 1포당 일반콩 2만7800원, 나물콩 2만9700원, 팥은 4만1880원이다.

거주지 시군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공급 물량이 한정돼 있어 신청 순위에 따라 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해야 하며 4월1일~5월10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될 계획이다.

전남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061-330-2773)나 시·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근재 기자